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브라질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2021년 11월 4일 | 조사역(G3) 정동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8,516 천 km ² 	인구 2.1억 명 (2021 ^f)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실리주의 
GDP 16,458억 달러 (2021 ^f) 	1인당GDP 7,741달러 (2021 ^f) 	통화단위 Real (R\$) 	환율(U\$기준) 5.27 (2021 ^f) 

□ 브라질은 남미 대륙 중동부에 위치(남미 대륙의 47% 차지)하여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9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인구 세계 6위 및 GDP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음.

□ 원유, 철광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량을 기반으로 원자재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2019년 1월 출범한 보우소나루 행정부는 임기 초반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등 친시장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갔으나, 최근 코로나19 부실 대응, 사법부와의 갈등 심화 등에 따른 저조한 지지율에 고전하고 있음.

□ 5G 사업 추진을 앞두고 미·중 양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으며,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와의 마찰이 지속되는 등 대외관계 측면에서 난제에 직면해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59. 10. 31. 수교 (북한과는 2001. 3. 9. 수교)

주요협정 무역협정('63), 문화협정('67), 이중과세방지협약('91), 과학기술협력협정('92), 항공협정('95), 관광협력협정('97), 범죄인인도조약('02), 사증면제협정('02),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05), 형사사법공조조약('06), 국방협력협정('08), 사회보장협정('15)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 출	4,883,693	4,809,207	3,943,638	반도체, 자동차부품, 원동기 및 펌프
수 입	3,908,060	4,295,597	4,237,366	식물성물질, 철광, 육류

해외직접투자현황(2021. 6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305건, 9,211,468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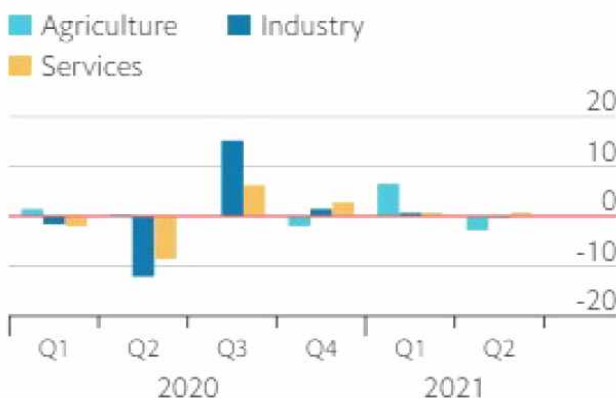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f
경제성장률	1.3	1.8	1.4	-4.1	5.2
소비자물가상승률	3.4	3.7	3.7	3.2	7.7
재정수지/GDP	-7.9	-7.1	-5.9	-13.4	-6.2

자료: IMF, EIU

중국·미국의 경기 회복 등으로 인한 플러스 경제성장이 전망되나 위험요인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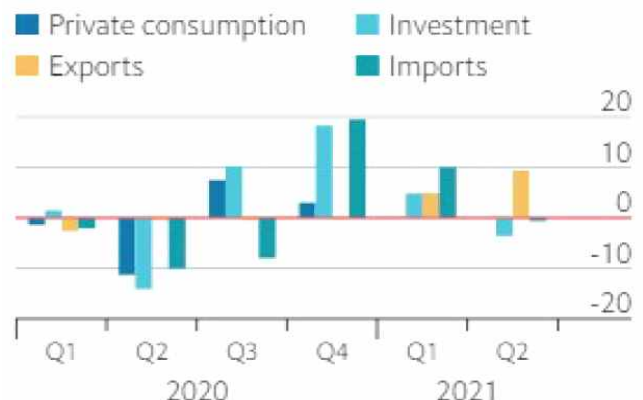
- 브라질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활동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4.1%의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세계 GDP 순위는 2019년 9위에서 2020년 12위로 하락함. 다만, 보우소나루 행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의무 자가격리 조치보다 거시경제 활성화에 더 주력한 결과, 중환자 병상 부족 등의 극심한 공중보건 위기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충격이 여타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크지 않았음.
- 중남미 주요 국가 2020년 경제성장률(IMF) : 브라질 -4.1%, 콜롬비아 -6.8%, 멕시코 -8.3%, 아르헨티나 -9.9%
- 2021년에는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의 경기 회복, 글로벌 원자재 호황 등의 영향으로 5.2%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이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 가뭄 지속,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함.
-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 및 EIU(2021. 9월)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브라질 GDP는 전분기 대비 0.1% 감소하여 EIU의 예상치(0.3% 증가)를 하회함. 이는 농업 부문에 대한 가뭄의 부정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가속화, 공급 혼란으로 인한 제조업 생산 차질, 정치적·재정적 위험에 따른 투자 위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브라질 산업별 GDP 증감률 (단위: % 전분기 대비)



자료: IBGE, EIU

브라질 지출항목별 GDP 증감률 (단위: % 전분기 대비)



자료: IBGE, EIU

국내경제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를 크게 상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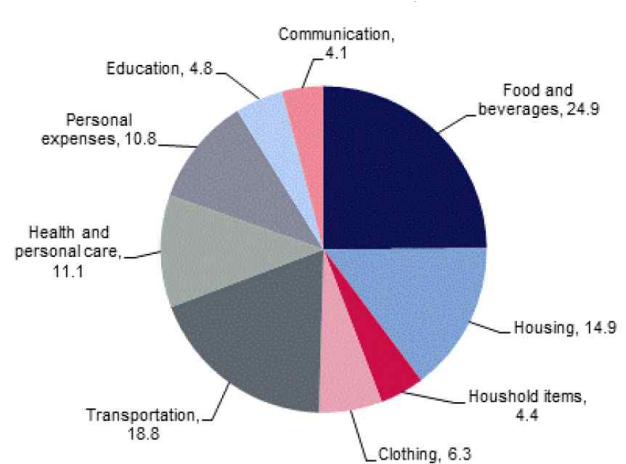
- 2020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해알화 평가절하에도 내수 위축과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년 (3.7%) 대비 둔화된 3.2%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브라질 중앙은행(BCB)의 2020년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 (4.0±1.5%p) 안에 위치함.
- 그러나 2021년 들어 심각한 가뭄과 이로 인한 수력발전 감소에 따른 전기료 인상, 높은 원자재 국제가격, 내수 회복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에 따르면, 2021년 월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월 4.56%였으나 2월 5.2%로 2021년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3.75±1.5%p) 상단에 도달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9월에는 2016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10.25%를 기록함.
-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10.25%)을 품목별로 분석하면, 교통(17.93%), 주거(14.00%), 생활용품(12.58%), 식료품(12.54%) 순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임. 이 중 교통 부문의 상승률은 연료 가격 상승(39.60%)에 의한 것이며, 주거 부문의 상승률은 심각한 가뭄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28.82%)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응한 BCB의 적극적인 긴축 통화정책에도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2021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7%로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안정화된 원자재 가격과 효과적인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대 초반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브라질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EIU) : ('22)6.3 → ('23)3.6 → ('24)3.5 → ('25)3.3 → ('26)3.2

브라질 월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IBGE, Trading Economics

브라질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품목 및 가중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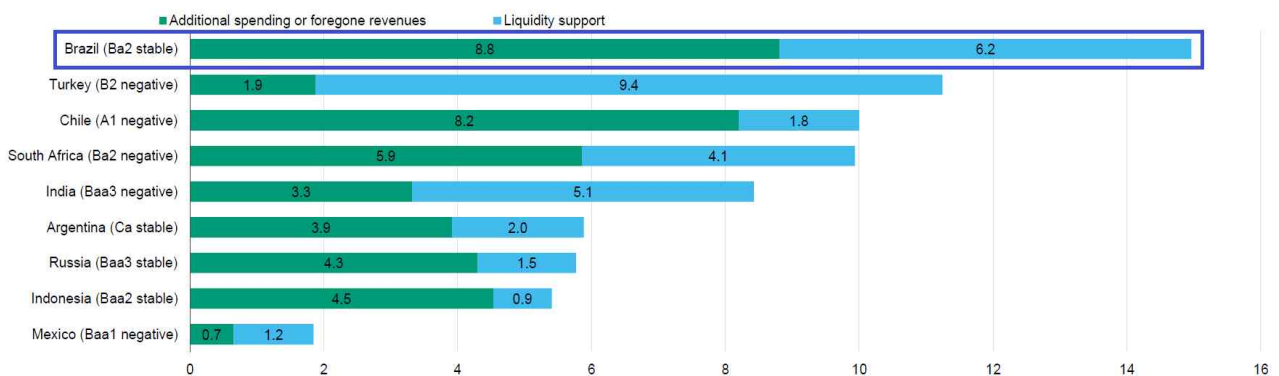
자료: BCB, Fitch Solutions

국내경제

재정적자 개선이 전망되나 구조적 재정건전화는 여전히 과제

- 브라질 정부는 2017년부터 실질 재정지출을 동결하고 조세 및 연금개혁을 추진하며 재정건전화 노력을 이어 왔으나,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GDP의 15%(직접적인 재정지원 8.8%, 유동성 지원 6.2%)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전년(-5.9%) 대비 대폭 악화된 -13.4%를 기록함.
- IMF(2021. 10월)에 따르면, 브라질의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은 2013년 60.2%에서 2019년 87.7%, 2020년 98.9%로 꾸준히 증가함. 이는 브라질 정부가 점차 악화되는 재정적자를 국내·외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로 충당하였음을 나타냄.
- 한편, 2021년에는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정부수입 증가, 경기부양책 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전년(-13.4%) 대비 개선된 -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정부지출이 근본적으로 경직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점,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 임금 인상,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확대, 디젤 연료 면세 등 정부지출을 대폭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는 점, 세제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반발이 심한 점 등은 향후 브라질의 재정건전화 달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Fitch Solutions(2021. 7월)에 따르면, 브라질의 정부수입은 교육, 주거, 보건 등 비교적 다양한 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정부지출은 ①급여 및 연금, ②채무원리금 상환, ③주정부 및 시정부 앞 재정지원에 필수적으로 할당되는 경직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 지출 감소를 위한 유의미한 예산 삭감에 어려움이 따름.
- 또한 EIU(2021. 10월)에 따르면, 2021년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은 GDP 증가로 인해 전년(98.9%)보다 감소할 것이나, 공적채무 부담은 여전히 높음. 이는 앞으로도 거시경제적 위험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나, 공적외채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채무위기는 외채상환 불이행보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더 높음.

브라질 등 주요 국가별 경기부양책 지출 규모 (2020년)



자료: IMF, Moody's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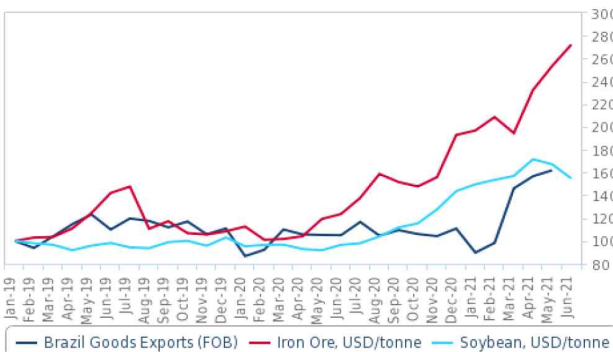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f
경 상 수 지	-22,033	-51,457	-65,030	-25,923	8,759
경상수지/GDP	-1.1	-2.7	-3.5	-1.8	0.5
상 품 수 지	57,325	43,373	26,547	32,370	64,717
상 품 수 출	218,000	239,520	225,800	210,707	283,255
상 품 수 입	160,675	196,147	199,253	178,337	218,538
외 환 보 유 액	365,445	365,544	346,490	342,707	370,425
총 외 채	667,103	665,199	676,080	640,135	628,082
총외채잔액/GDP	32.3	34.7	36.0	44.3	38.2
D.S.R.	38.6	40.4	38.2	45.9	30.4

자료: IMF, EIU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 전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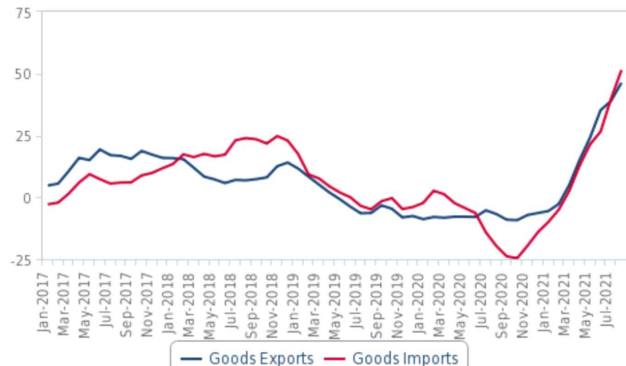
-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둔화되며 브라질의 수출입 지표가 대폭 악화되었으나, 상품 수입의 감소 폭(-17.5%)이 상품수출 감소 폭(-6.6%)보다 커 상품수지 흑자는 21.9% 확대됨. 또한 서비스수지 적자 및 본원소득수지 적자가 개선되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3.5%) 대비 개선된 -1.8%를 기록함. 한편, 2021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대중대미 수출 회복 등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약 2배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며,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0.5%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됨.
- Fitch Solutions(2021. 7월)에 따르면, 2021년 상품수출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철광석과 대두가 차지할 것이며, 각각 전년 대비 113.8%, 29.6% 증가한 수출액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됨.

브라질 상품수출액 및 철광석, 대두 수출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Fitch Solutions (2019년 1월 = 100)

브라질 상품수출·수입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 대비, %)



자료: 브라질 경제부, Fitch Solutions

대외거래

월평균수입액의 13개월 이상의 양호한 외환보유액 유지

- 고질적인 재정적자 등으로 인한 브라질의 거시경제적 위험에 대하여 양호한 수준의 외환보유액은 브라질의 주요 위험 완화 요인으로 작용함. 2020년 1월 평균 4.15헤알이던 헤알화 환율(USD/BRL)은 코로나19에 따른 거시경제 둔화, 금융시장 불안 증폭 등의 여파로 5월 평균 5.64헤알로 4개월 만에 약 35.9% 상승함. 이에 브라질 중앙은행(BCB)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헤알화 방어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그 결과 2020년 말 헤알화 환율은 5.20헤알로 하락함. IMF(2020. 11월)에 따르면, BCB는 효과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과도한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소진된 외환보유액을 수개월 안에 회복하였음.
- 한편, 수출입 환경 개선과 원자재 시장 활황에 따른 무역흑자 폭 확대, FDI 유입액 증가 등으로 인해 2021년 말에는 외환보유액이 전년 말(3,427억 달러, 월평균수입액의 14.3개월) 대비 8.1% 증가한 3,704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13.2개월)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들어 코로나19 재확산 및 정치적 혼란 가중으로 헤알화 가치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1분기 말 헤알화 환율은 5.70헤알로 전분기 말 대비 9.6% 상승하였으나,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과 2021년 4월 예산안 승인에 따른 단기적인 재정 리스크 감소 등으로 인해 2분기 말 5.00헤알로 전분기 말 대비 12.2% 하락함.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금 증대됨에 따라 3분기 말 5.44헤알로 전분기 말 대비 8.8% 상승하며 변동성이 지속됨.
- 그 결과 IFS(2021. 10월)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말 브라질의 외환보유액은 3,380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약 47억 달러 감소하였으며, 향후 헤알화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외환보유액은 예상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우려됨.

브라질 외환보유액 및 현물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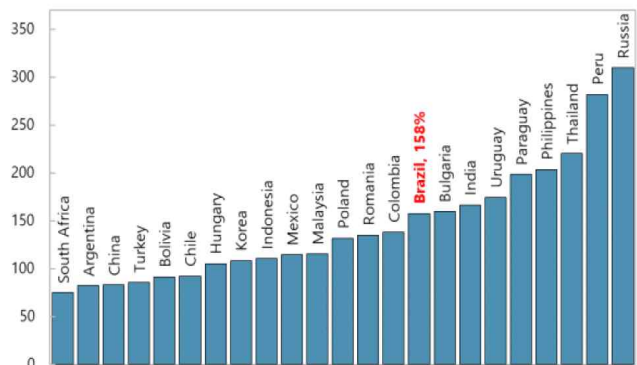
(단위 : 십억 달러, 왼쪽 축, BRL/USD, 오른쪽 축)



자료: IMF

브라질 등 주요 국가별 외환보유액 수준 (2019년)

(IMF 기준 적정 외환보유액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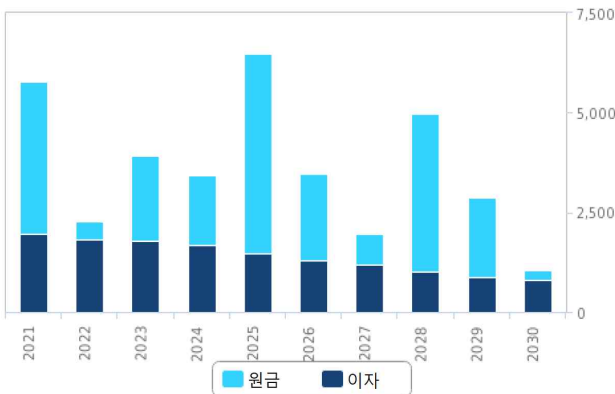
자료: IMF

외채상환능력

외채 관련 지표 개선에 힘입어 양호한 외채상환능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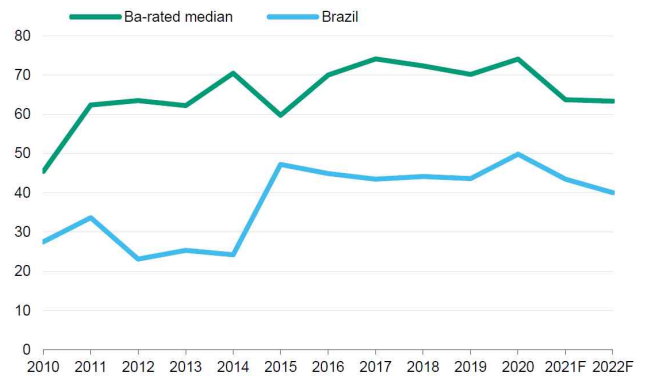
- 2020년 말 브라질의 총외채잔액은 6,40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6,761억 달러)보다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GDP와 총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44.3%로 전년(36.0%) 대비 8%p 이상 증가하였으며, D.S.R은 45.9%로 전년(38.2%) 대비 증가함.
- 한편, 2021년에는 GDP와 총수출의 회복으로 인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38.2%, D.S.R은 30.4%로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총외채잔액 대비 공적외채잔액 비중이 비교적 낮은 수준(20% 이하)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총외채의 약 90%가 장기외채인 점을 고려하면, 브라질이 외채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제한적임.
- 총외채잔액 대비 공적외채잔액 비중(% , Moody's) : ('17)20.0 → ('18)19.4 → ('19)19.0 → ('20)16.3 → ('21)20.0
- Moody's(2021. 7월)에 따르면, 2021년 브라질의 공식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 원리금 상환예정액 비중은 43%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비교적 낮은 수준의 대외취약도를 고려했을 때 브라질은 양호한 외채상환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됨.

브라질 외채 원리금 상환예정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Bloomberg, Fitch Solutions

신용등급 Ba 국가와 브라질(Ba2)의 대외취약도* 비교



* (단기외채 + 장기외채 중 1년 이내 만기 도래 외채) / 공식 외환보유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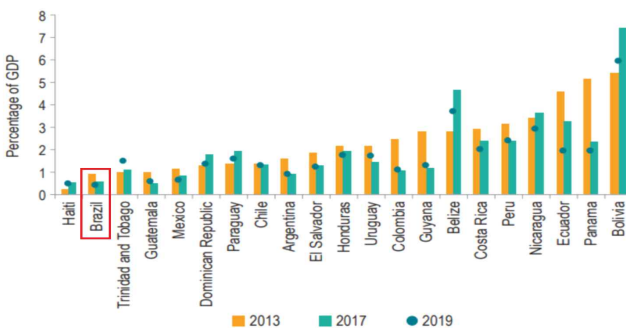
자료: National authorities, Haver, Moody's

구조적취약성

높은 조세부담, 운송 인프라 부족, 노무관리 부담 등 '브라질 코스트'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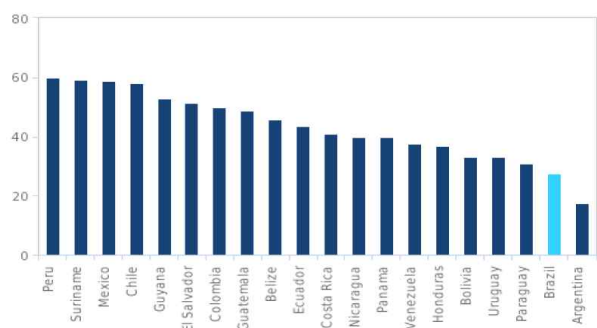
- 브라질은 인구 2.1억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조세부담, 인건비 및 관세장벽 등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에 따른 열악한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
- **(조세부담)** 복잡한 조세구조와 높은 세율은 기업들에 막중한 부담으로 작용함. KOTRA(2021. 1월)에 따르면, 80개가 넘는 조세규정과 계산법이 복잡한 과세제도로 인해 기업들이 관련 규정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함. 또한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브라질의 이윤 대비 조세부담률은 65.1%로 중남미 평균(46.6%)과 OECD 평균(41.6%)을 모두 크게 상회함.
- EIU의 2021~25년 기업환경 분석 및 전망에서 브라질의 기업환경은 6.33점으로 세계 82개국 중 48위를 차지하였으나, 조세 부문에서는 4.7점으로 80위에 그침.
- **(운송 인프라)** 낮은 도로포장률(18%), 혼잡한 도로망 등 열악한 도로 인프라 상황으로 인해 기업의 운송비용 부담이 높으나, 정부는 취약한 재정여력 등으로 인해 공공 인프라 개선에 미온적임.
- 브라질 인프라기간산업협회(ABDIB)에 따르면, 2020년 운송 분야에 투자된 금액은 250억 헤알로 필요 투자 금액(1,490억 헤알)의 17%에 불과함. 또한 미주개발은행(IDB)에 따르면, 2019년 브라질의 공공 인프라 투자는 GDP의 0.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중남미 평균 1.7%).
- **(노무관리)** 지난 수년 간의 노동법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건비, 근로자 중심의 과도한 복리후생 보장, 강성노조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불안 및 까다로운 노무관리에 따른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 Fitch Solutions(2021. 7월)에 따르면, 1940년대 제정된 통합노동법(CLT)은 노사 분쟁 해결을 위한 국가 주도적 관리방식에 치중하여 노무관리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노사관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동법은 근로자 앞 복리후생을 과도하게 보장하여 기업들의 영업비용에 부담으로 작용함. 기업은 매년 말에 1개월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13번째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평균 26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급여의 1/3에 해당하는 휴가비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함.
- 또한 중앙단일노조(CUT) 등의 강성노조가 노조친화적인 정치환경에 힘입어 주기적으로 파업을 주도하여 기업친화적인 법안이 발의되는 데 어려움이 따름.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Fitch Solutions가 평가한 브라질의 인건비 부문 위험지수는 27.4점으로 세계 201개국 중 197위(중남미 20개국 중 19위)에 그침.

중남미 주요 국가별 GDP 대비 공공 인프라 투자 비중 (단위: %)



자료: IDB

중남미 주요 국가별 인건비 부문 위험지수 (단위: 점)



자료: Fitch Solutions (0~100점, 지수가 낮을수록 위험이 높음)

성장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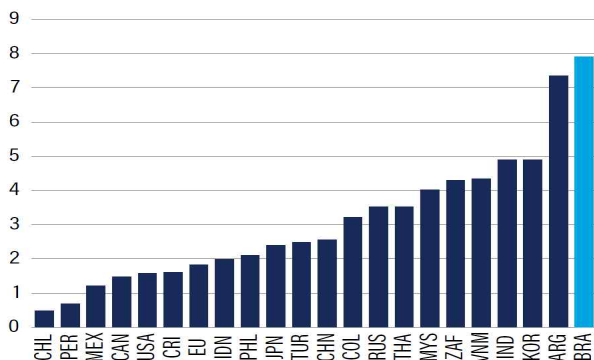
원유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우수한 농업환경, 대규모 내수시장 보유

- 미 에너지관리청(EIA)에 따르면, 브라질의 원유 생산량은 2020년 기준 290만 배럴/일로 세계 8위 수준이며 원유 확인매장량은 2019년 기준 130억 배럴로 세계 14위 수준임. 또한 미 지질조사국(USGS)의 2020 광물자원 개요에 따르면, 세계 2위의 채광기업 Vale를 보유한 브라질은 전 세계 철광석 생산·수출 2위, 보크사이트 생산 4위, 망간 생산 6위 및 니켈 생산 8위 국가로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생산하고 있음.
- Fitch Solutions(2021. 7월)에 따르면, 활발한 원유 생산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는 여전히 미개발된 상태로 매장되어 있는 원유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며, 브라질 국영 에너지 기업 Petrobras의 적극적인 원유 탐사로 인해 원유 확인매장량은 2029년 172억 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브라질은 대두 및 옥수수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국으로 2011~20년 농산물 수출액은 1조 달러에 육박함.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은 타격을 거의 입지 않아 역대 최고치(877억 6,000만 달러)의 농업 부문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수출 중 농산물 비중이 48%를 차지하였음.
- 브라질 농업공사(Embrapa)는 2020년 농산물 수출량이 1억 2,200만 톤으로 미국(1억 3,800만 톤)과 유사한 규모를 시현한 점, 농산물 생산량이 2000년대 들어 매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해온 점(2018년 제외) 등을 고려하여, 브라질이 5년 안에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브라질은 세계 5위(남미 1위) 면적인 851.6만 km²의 국토에 세계 6위 인구 규모인 2.1억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추고 있어 중남미 지역을 아우르는 거점 국가로 손꼽히고 있음.

오랜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인한 높은 관세 및 낮은 무역 개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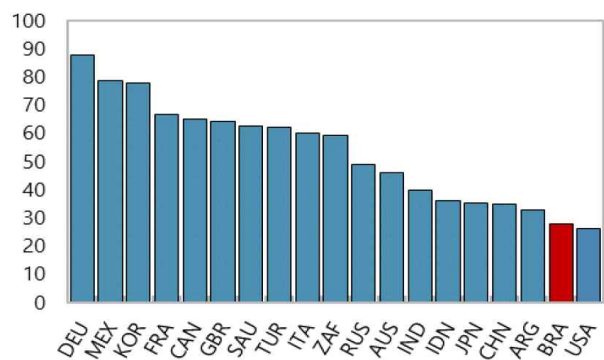
- 브라질은 역사적으로 강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표방해 온 국가로, 1990년 시장 개방 이후 관세·비관세 장벽이 낮아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타 국가들에 비하면 무역 개방도가 낮은 편임.
- WITS에 따르면, 브라질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1989년 31.92%에서 2019년 7.97%로 대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여타 국가들에 비해 높음. IMF는 연례협의 보고서(2020. 12월)에서 브라질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프라 투자 증대, 금융시장 경쟁 촉진, 기업 운영비용 절감과 더불어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브라질 등 주요 국가별 실행관세율 (전 상품 가중평균, %)



자료: WITS, OECD (2018년 기준 최신 수치)

G20 국가별 무역 개방도 (2019년 GDP 대비 교역액 비중, %)



자료: IMF

성장잠재력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절반 이하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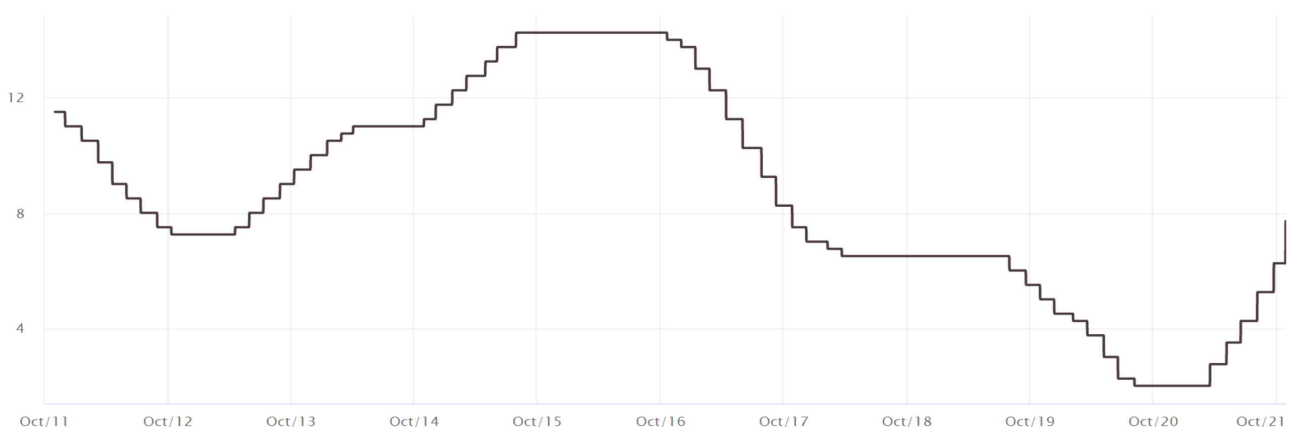
- 브라질은 2019년 71개의 공공자산을 매각하여 1,540억 헤알(약 391억 달러) 상당의 재원을 확보하는 등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전년(598억 달러) 대비 약 9.3% 증가한 654억 달러의 FDI 유입을 시현하였으나, 2020년에는 보수소나루 행정부의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심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계획을 대거 연기·취소하며 FDI 유입액은 전년(654억 달러) 대비 약 62.1% 감소한 248억 달러에 그침.
- 2021년에는 경기 회복,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등으로 FDI 유입액이 다소 증가할 것이나, 고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상 기조,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BCB(2021. 7월)에 따르면, 2021년 6월 FDI 유입액은 1.7억 달러로 전년(52억) 대비 무려 96.7% 감소하였으며, 이는 1995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임.

정책성과

물가상승 압력 가중에 따라 5년 8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단행

- 브라질 중앙은행(BCB)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2015년 8월(14.25%)부터 2021년 1월(2.00%)까지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을 반복하였음. 그러나 2월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20%를 기록하며 금년 물가상승률 목표범위(3.75±1.5%)의 상단에 도달함에 따라, 3월 BCB는 2021년 2차 통화정책위원회(COPOM) 정례회의에서 5년 8개월 만에 0.75%p의 기준금리 인상(2.00% → 2.75%)을 단행하며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함.
- 뒤이어 5월 0.75%p, 6월 0.75%p, 8월 1%p, 9월 1%p, 10월 1.5%p를 인상(2.75% → 7.75%)하는 등 매파적 조치를 단행하였으나, 글로벌 공급 부족, 헤알화 평가절하, 이상기후 등의 물가상승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향후 통화정책 실시에 난항이 예상됨. 다만, 2021년 BCB가 공식적으로 중앙은행 독립성을 확보함에 따라, 중기적 관점에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통화정책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낮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브라질 중앙은행(BCB) 기준금리 추이 (단위: %)



정책성과

친시장적인 세제·행정 개편은 정체 상태

- 2022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현 행정부의 정책 수립 기초가 예측 불가능한 포퓰리즘으로 편향되고 있으며, 이에 사회적 반발이 큰 친시장적인 세제·행정 개편은 우선순위에서 더욱 밀려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6월 25일 파울로 구에데스 브라질 경제부 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PL 2337/2021)은 2023년까지 법인소득 기본세율의 점진적 인하(15%→10%) 등을 포함한 대신, 주식배당금 등 분배된 이익(distributed profits)에 부과되는 세금을 별도 신설함에 따라 국회의원 및 기업가들의 반발에 부딪힘. 그러나 동 법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지난 9월 2일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현재 상원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나 의결 계획은 미정임.
- EIU(2021. 9월)에 따르면, 소득세 개편에 중점을 둔 동 법안은 최종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나, 그 외에 연방·주시정부 소비세 일원화 개편안(PEC 45/2019) 및 사회기여세(PIS)-사회보장세(COFINS) 통합 개편안(PL 3887/2020) 등 세제 간소화 측면의 개편은 지연되고 있음.
- 한편, 대외공동관세를 둘러싼 아르헨티나와의 갈등으로 인해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개방적 운영 노력이 정체되고 있었으나, 2021년 10월 8일 양국 정부가 대외공동관세 10% 인하에 합의하며 향후 무역자유화 측면의 진전이 기대됨. 다만 EIU(2021. 10월)에 따르면, 남미공동시장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됨.
- 국영 우체국 코헤이우스(Correios)의 민영화 법안은 2021년 말까지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나, 공공 부문 개편안(PEC 32/2020)은 공무원 및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2022년 말까지 도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 중앙은행(BCB)에 따르면 브라질의 공무원 임금은 2019년 GDP의 12.9%에 달하나, 경직성 경비의 특성상 유의미한 정책 변화 없이는 삭감이 어려웠음. 이에 2020년 9월 공무원 구조조정, 신규 공무원 임금 삭감 등을 골자로 한 공공 부문 개편안이 하원에 제출되었으며, 2021년 9월 하원 특별위원회(Comissão Especial)의 승인을 받아 현재 본회의를 앞두고 있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한 소극적 대응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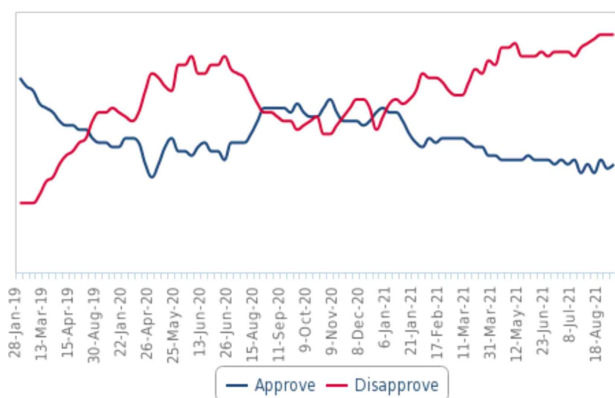
- 보우소나루 행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주력한 결과, 브라질 내 보건 위기에 상대적으로 안이하게 대응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s(2021. 6월)에 따르면,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진의 85%가 상파울루에서 발생하였으나, 도로 봉쇄 및 한시적 이동 제한 등과 같은 방역 조치가 시행되지 않아 바이러스가 상파울루로부터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분석됨. 이에 2020년 6월~2021년 6월 브라질의 누적 사망자 수는 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약 10배 증가하였음.
-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반대, 사회적 거리두기 지양 등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재임기간 중 코로나19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됨. 2021년 6월 이후 신규 확진자·사망자 수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021년 11월 1일 기준 브라질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181만 명(전 세계 확진자의 9.9%), 누적 사망자 수는 61만 명(전 세계 사망자의 13.4%)에 달함.
- 다만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브라질은 2021년 10월 말 기준 1차 접종률 75.3%, 접종 완료율 57.1%를 달성하며 비교적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브라질 보건부는 금년 안에 전 국민 대상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 밝힘.

정치안정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및 대통령-사법부 간 갈등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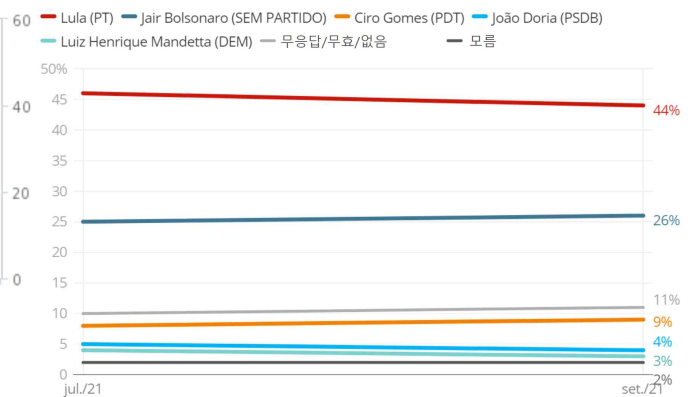
- 실업 증가 및 소비자물가 폭등, 보건환경 악화 등에 따라 브라질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며 보우소나루 행정부의 코로나19 부실 대응과 관련하여 2021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지지율은 2020년 말부터 꾸준히 하락해 왔음.
- 이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정치적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전자투표제에 따른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함. 2021년 8월 10일 제출한 '전자투표 폐지·투표용지 사용' 개헌안이 하원에서 부결되었으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여전히 전자투표제 부정 의혹을 주장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알렉산드레 모라에스 대법관은 가짜 뉴스 유포 혐의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브라질 연방대법원(STF) 간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됨. 이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모라에스 대법관 탄핵 요구서를 상원에 제출하였으나, 상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정치적 고립을 자초함.
-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저조한 지지율에 대항하여 쿠데타 암시 등 반민주적이고 극단적인 언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열성 지지자들의 시위 역시 계속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2021년 3월 부패 혐의 일체에 무죄를 선고 받은 룰라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어, 지지율 반등을 위한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행보는 더욱 과격해질 것으로 우려됨. 이를 고려했을 때, 브라질에 상존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2022년 대통령 선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IHS Markit(2021. 9월)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이 헌정질서 파괴를 초래할 가능성은 의회 및 연방대법원의 대응을 미루어볼 때 다소 제한적이거나, 이 영향으로 재정개혁 등 법안들의 검토·제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보우소나루 대통령 지지율 추이 (단위: %)



자료: Various polls, local media, Fitch Solutions

브라질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율 추이 (단위: %)



자료: Datafolha (2021. 9. 13 ~ 9. 15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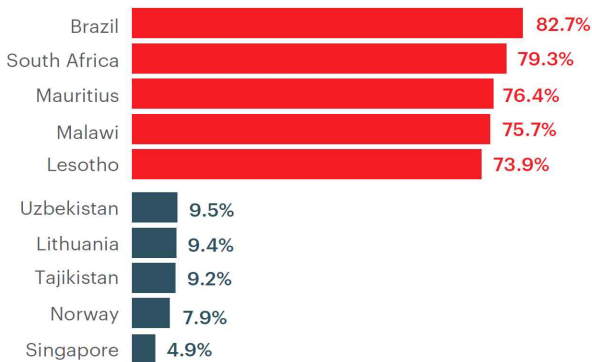
사회안정

폭력 범죄 만연에 따른 사회적 불안 지속

- 로이드선급협회(Lloyd's Register Foundation)와 경제평화연구소(IEP)가 갤럽과 함께 세계 142개국에서 총 1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World Risk Poll 2019에 따르면, 브라질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Violence) 문항에서 82.7%의 응답자가 '매우 두렵다'고 답하며 142개국 중 1위를 차지함. 또한 '일상생활의 가장 큰 위험'(Greatest Risk) 문항에서 63.3%의 응답자가 '폭력 범죄'라 답하며 아프가니스탄(71.8%)에 이어 2위(중남미 1위)를 차지함.
- 또한 브라질공안포럼(BFPS)의 강력 범죄 통계연감(2021. 7월)에 따르면, 2020년 브라질 내 폭력 범죄에 의한 사망자는 50,033명으로 전년(47,742명) 대비 4.8% 증가하였으며, 이는 브라질의 치안환경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의무 자가격리 조치에도 악화되었음을 보여줌.
- 사건 종류별 빈도는 일반 살인(42,105명), 경찰에 의한 사망(6,416명), 강도에 의한 사망(1,428명), 신체 상해로 인한 사망(672명), 경찰 사망(194명) 순임.
- 한편, 2021년 5월에는 브라질 남동부 리우데자네이루 시내 빈민가에서 경찰과 마약 조직 간에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관 1명, 마약 조직원 24명 등이 사망하고 경찰관 2명, 지하철 승객 2명 등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기 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일반인의 총기 소유가 늘어나면서 폭력 사건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총기 소유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여론조사기관 MDA에 따르면 응답자의 68.2%가 총기 소유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고 답변함.
- Fitch Solutions(2021. 10월)에 따르면, 폭력 조직이 연루된 범죄는 오래 전부터 브라질의 중대한 사회 문제로서 정부의 운영 환경(operational environment)과 공신력을 훼손함. 조직원들의 탈옥이 일상화되었으며, 다수의 지역이 범죄 조직에 의해 통제되는 등 치안 환경이 열악함.

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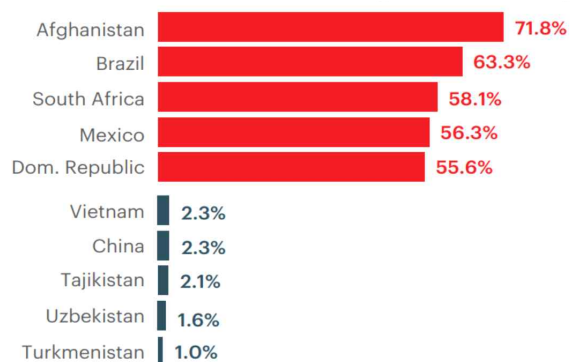
(각국 응답자 중 폭력범죄에 대해 '매우 두렵다'고 답한 비중)



자료: Lloyd's Register Foundation, IEP

가장 큰 위험

(각국 응답자 중 일상생활의 가장 큰 위험이 '폭력'이라고 답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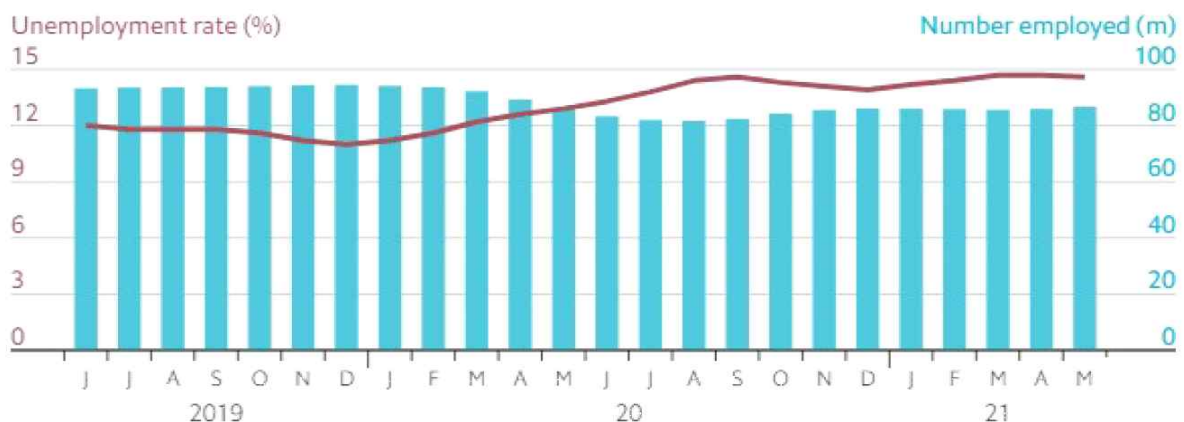
자료: Lloyd's Register Foundation, IEP

사회안정

경기 회복 추세에도 2021년 1·2분기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 경신

-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실업률은 14.7%로 전년 동기 대비 2.5%p 상승하였으며, 이는 2012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경신한 것임. 이후 2분기에도 전분기와 동일한 14.7%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브라질의 고용환경 회복세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코로나19 위기가 일부 해소되고 실망실업자들이 취업 준비를 재개하고 있으나, 신규 일자리 수가 부족하여 고용자 수 증가세도 제한적임.
- EIU(2021. 8월)에 따르면, 오닉스 로렌조니 브라질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이 고용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나, 이는 경직적 노동구조의 개선보다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에 국한된 정책일 것으로 전망됨.

브라질 실업률 및 고용자 수 추이 (단위: %, 백만 명)



자료: IBGE, EIU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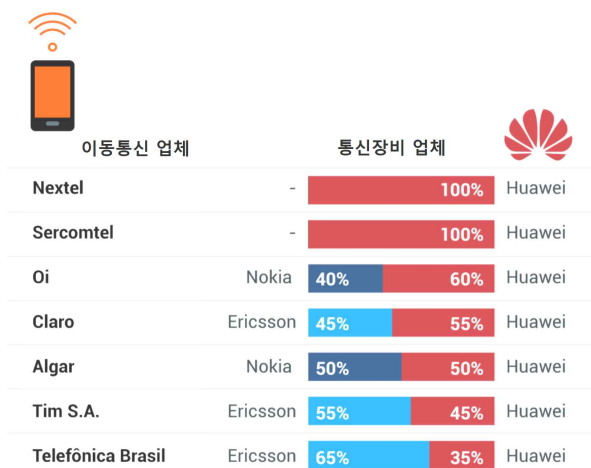
- Moody's(2021. 7월)는 ESG 요소가 브라질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거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 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8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5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0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2개국이 2·3등급, 65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풍부한 천연자원, 넓은 국토 및 높은 경제다각화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브라질의 핵심산업인 석유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탄소전환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양호한 인구구조와 광범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있으나, 높은 소득불평등과 기초생활서비스 제공 부족 등이 한계로 지적됨. 향후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세계은행(WB)의 세계가버넌스지수(WGI) 발표에 따르면 브라질은 정책 효과성 및 부패 통제의 측면에서 비교적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법체계, 통화정책체계 등의 제도적 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은 중립적(2등급)으로 평가됨.

국제관계

브라질 5G 사업 관련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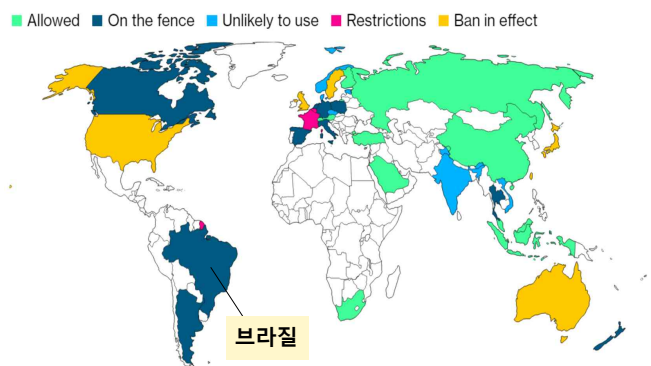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연되었던 브라질의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위한 국제입찰이 오는 11월 4일 시행될 예정이며, 동 입찰에 대한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Huawei)의 참여 허용 여부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통신부 산하 국가통신국(ANATEL) 자문위원회의 5G 국제입찰 관련 보고서에는 화웨이의 입찰 참여 제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미국은 2019년부터 '클린 네트워크'(5G 통신망과 모바일 앱 등에서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화웨이의 입찰 참여 제한을 주장해 왔음.
-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21년 8월 초 보우소나루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5G 사업에서 화웨이의 배제를 요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현 행정부 역시 화웨이에 대한 제재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드러냄.
- 화웨이는 이미 20여 년 전 브라질에 진출하여 통신장비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현재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이동통신 장비의 30~40%가 화웨이 제품임. 따라서 브라질이 화웨이의 입찰을 제한할 경우, 브라질의 5G 기술진보가 지연될 것이며 소비자 앞 전가되는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2021년 들어 친미·반중 성향이 강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점, 연초 코로나19 재확산세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국 시노백 백신을 대거 들여온 점, 브라질 이동통신업체가 정부에 화웨이의 입찰 참여 허용을 촉구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브라질이 당장 중국 기업인 화웨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브라질 이동통신 업체별 통신장비 사용 비중 (단위: %)



자료: Poder360

국가별 화웨이 5G 설비 허용·배제 여부



자료: Bloomberg, 2020년 10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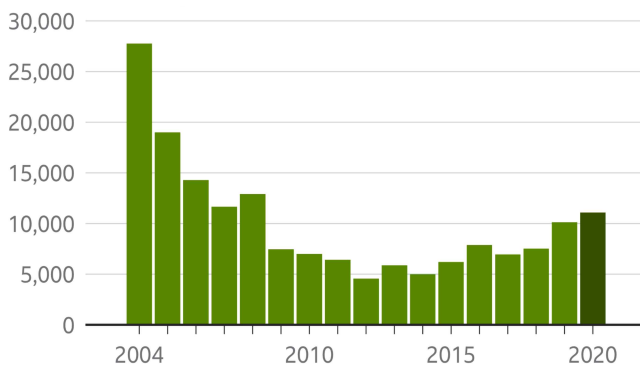
국제관계

아마존 열대우림 보존을 둘러싼 외교갈등 지속

- 2020년 기준 브라질 국토의 58.9%를 차지하고 있는 아마조니아 레가우(Amazônia Legal,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는 아마존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우소나루 행정부가 2019년 출범한 이후 더욱 심화되었음.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 지역의 빈곤 해소를 목적으로 농장 및 광산 개발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등 경제 개발을 우선시하는 한편 열대우림 보호를 도외시해 왔다는 비판을 받음.
-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은 11,088km²로 전년 동기(10,129km²) 대비 9.5% 증가함.
- 이와 같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반(反)환경적인 정책에 대하여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미 바이든 대통령 앞 서한을 통해 2030년까지 삼림 무단 벌채를 종식하겠다고 약속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한 바 있으나, 보우소나루 행정부는 불법 삼림 파괴 단속 처벌에 국한된 정책 실시에만 주력하고 있어 향후 국제사회와의 긴장 관계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후보 시절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호하는 대가로 브라질 정부 앞 20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며, 브라질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브라질에 상당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EU)** EU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2019년 6월 벨기에 브뤼셀 각료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했으나, 이후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이슈가 부상하면서 EU 회원국들이 동 협정에 반대하기 시작함. 2020년 12월 3일 브라질 주재 이그나시오 이바네스 EU 대사는 EU-Mercosur FTA 체결이 보우소나루 행정부의 환경보호 의지에 달렸음을 강조하며,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EU 회원국 의회의 FTA 체결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OECD)** OECD는 아마존 열대우림 벌채 허용 등 보우소나루 행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환경 문제 해소 노력이 브라질의 OECD 가입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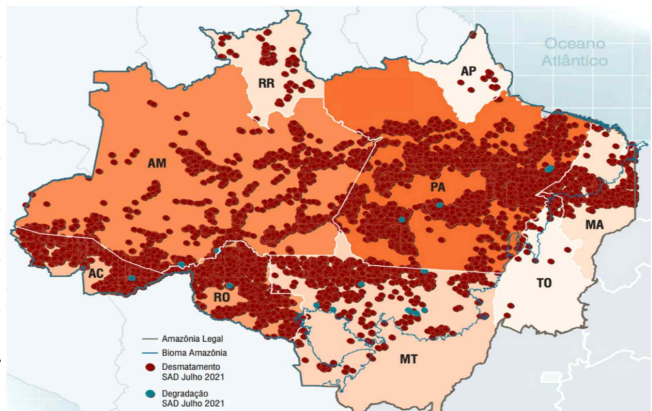
연도별 아마조니아 레가우 삼림 파괴 규모

(단위: km², 직전 연도 8월~당해 연도 7월)



자료: Prodes, INPE, BBC

아마조니아 레가우 삼림 파괴 및 삼림 황폐화 실태 (2021년 7월)



자료: Imazon, Mongabay. 삼림 파괴(deforestation) 감지 지역은 붉은색, 삼림 황폐화(degradation) 감지 지역은 푸른색으로 표시

외채상황태도

양호한 외채상황태도 유지

- 2021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들의 대 브라질 여신잔액 264.6억 달러(단기 57.8억 달러, 중장기 206.8억 달러) 중 연체액은 4.8억 달러로 1.8%에 불과하며, 전체 외채구조에서 중장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78.2%로 안정적인 구성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브라질은 1961~92년 파리클럽을 통해 체결된 6건의 채무재조정 협약에 대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였고, 1992년 이후로는 추가적인 채무재조정이 없어 외채상황태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5등급 (2021.10)	5등급 (2020.10)
Moody's	Ba2 (2020.05)	Ba2 (2018.04)
Fitch	BB- (2021.05)	BB- (2020.11)

신용등급은 전년과 동일하나,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하향 조정 가능성 상존

- 브라질의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은 브라질 정부의 친시장 정책과 대규모 내수시장, 다변화된 산업구조 등을 바탕으로 2018년 2월 이후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다만, Fitch는 2020년 5월 재정적자 심화 및 외채 부담 증가,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브라질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공시한 바 있음. 또한 Moody's는 2021년 7월 연간 신용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 심화로 브라질 정부의 세제·행정 개혁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신용등급 하향 조정 압력이 커질 것이라 밝힘.

- 브라질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 위축과 원자재 수출가격 하락으로 인해 -4.1%의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2021년에는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원자재 수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5.2%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나, 고인플레이션 추세, 정치적 불확실성 등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함.
-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정부수입 증가, 경기부양책 축소 등으로 인해 2021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전년(-13.4%)보다 개선된 -6.2%를 기록할 것이며,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글로벌 원자재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로 전년(-1.8%)보다 개선되어 흑자 전환(0.5%)할 것으로 전망됨.
- 보우소나루 행정부 앞 코로나19 부실 대응 및 경기 둔화의 책임을 묻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2021년 5월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정치적 주도권 회복을 위해 전자투표제 부정 의혹 제기, 사법부 공격 등 반민주적이고 급진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이에 정치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브라질 코스트' 극복을 위한 세제·행정 개혁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